

우리 사회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입시위주의 풍토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학업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 평가에 따르다보면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갖기 힘든 실정이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을 통하여 한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실현해 나가고, 개인의 생활 양식이 결정되고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일생을 결정하게 된다(Tolbert, 1980). 자신이 진로를 결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진로에 대하여 갈등을 가지거나 미결정 상태에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할 때 그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인간이 출생하여 최초로 사회적 접촉을 하면서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배워나가는 곳은 가정이다. 각 가정이 제공하는 외형적인 물리적 환경보다 가족 구성원간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환경이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은 자녀의 지적·정의적 발달 특성에 영향을 주어 행동, 가치관, 지식, 태도 등을 습득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며 가족 구성원 중 부모가 이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자녀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성격형성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성장기에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 대해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자녀의 정의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종승, 오성심, 1982).

성취목표는 일반적으로 어떤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나(Machr, 1989) 어떤 활동에서 자신의 유능감을 보여주거나 증진시키려는 바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취목표의 효과는 성취와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나타나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취목표의 결정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개인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되고 개인 외적인 요인으로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Ames, 1992). 환경적 요인으로는 학습의 풍토를 들 수 있는데, 학교와 부모의 영향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책임감, 독립감, 자존감과 더불어 학업 성취가 다르게 나타난다(Irwin & Simons, 1994).

진로결정수준이란 자신의 전공 선택 및 직업 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서, Blau, Hollingshead, Miller와 Form 등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정의 영향력, 학업성취도, 지역사회의 조건, 압력집단의 유형, 역할 지각 등의 요인들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김충기, 1989).

Symonds(1949)는 문헌 고찰을 통해 주된 부모의 행동으로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두 차원을 들었으며, Schaefer(1965)는 요인 분석을 통하여 어머니의 행동을 크게 사랑-적대(love-hostility), 자율-통제(autonomy-control)의 두 축으로 보았다.

Becker(1964)는 부모의 행동을 온정-적대, 제한-허용으로 나눈 후, 온정에는 수용, 애정, 승인, 이해, 자녀중심의 행동, 빈번한 설명, 의존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반응, 칭찬 등을 포함시켰으며, 적대에는 거부, 질책, 부모의 부정적 반응 등을 포함하였다. 제한에는 자녀들의 예의범절, 배변 연습, 정리정돈, 소란 등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들었고, 허용에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를 들었다.

발달심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지되어 온 양육 형태는 Maccoby와 Martin(1983)의 네가지 양육 형태로 이들은 애정과 통제의 두 주요 차원을 교차시켜 부모의 양육형태를 민주형, 전제형, 익애형, 방임형으로 나누었다. Baumrind(1967)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 독재, 허용으로 나눈 뒤, 권위를 나타내는 행동 특징으로는 사랑 통제 대화 등을, 독재에는 처벌 자녀와의 분리 냉담함을, 허용에는 온정적이긴 하나 통제와 규율이 없고 비일관적인 자녀 양육태도로 범주화하였다. 송철희(1993)는 부모의 수용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온정, 애정, 사랑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표현과 언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자녀들은 그들이 사랑 받고 수용됨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부모의 거부는 사랑, 애정, 온정이 부모로부터 없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는 적대감 및 공격성, 무관심 및 무시, 미분화된 거부(undifferentiated rejection)의 세 형태로 나타난다(Rohner, 1984). 부모의 거부는 부정적 자기 평가, 부정적 자기 적절감과 관련된다.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게서 거부되면 자신은 사랑 받지 못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일반화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

인 평가를 받게되며 이는 다시 그들의 자기 존중감에 손상을 초래하게 되어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강화시키게 된다(Rohner, 1984).

Rohner(1991)의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PART)은 아동의 행동, 인지, 정서발달에 있어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의 성격에 대해 부모의 수용과 거부의 결과를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사회화 이론이다(김경희, 황혜정, 1998). Rohner(1975)는 101개의 사회집단에서 표집한 어린이 검사 결과에서 부모로부터 거부된 어린이들은 수용된 어린이에 비해 적대적, 공격적, 혹은 수동공격성을 보이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의존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147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권순명, 1993). Saavedra(1980)는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와 통제에 관계된 자기존중감과 자아충족감에 초점을 두고 푸에토리코 청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기존중감과 자기충족감은 부모의 수용-거부이론(PART)에서 예견했던 대로 지각된 부모의 온정(수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권순명, 1993).

성취목표 이론가들은 성취목표를 과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숙달 목표(mastery goal)와 타인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수행목표(performance goal)로 구분하고 있다(Ames & Archer, 1987). Dweck(1986)은 성취동기에서 비롯한 목표 달성 정도는 수행목표(performance goal)와 학습목표(learning goal)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으며, Nicholls(1984)에 의하면 성취목표가 자아개입(ego involvement)을 위한 것인지 혹은 과제 개입(task involvement)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학습자의 동기가 달라진다. 또한 Ames(1984)는 성취목표이론(Achievement goal theory)

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목표를 과제목표(task goal)와 능력목표(ability goal)로 구분하여 성취동기를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성취목표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결과는 숙달목표를 지향하면 적절한 수준의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실패 후에도 과제를 지속하며 과제에 대한 흥미가 유지되거나 증가된다. 반면에 수행목표를 지향하면 지나치게 쉽거나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으며 과제에 대한 흥미가 감소되는 등 성취장면에서 무기력한 반응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Ames, 1992; Dweck & Leggett, 1988; Elliot & Dweck, 1988; Nicholls, 1989). 이제까지 성취목표의 효과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성취목표를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로 구분한 이 분류법에 근거한 것이다(Butler, 1992; Deci & Ryan, 1980; Elliot & Dweck, 1988). 한편 최근에는 수행목표를 수행 접근 경향의 수행접근목표(Performance-approach goal)와 회피 경향의 수행 회피목표(Performance-avoidance goal)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Elliot & Harackiewicz, 1996). 후속 연구에서는 수행목표일지라도 성취 동기의 접근 경향성과 회피경향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Elliot & Church, 1997; Elliot & Harackiewicz, 1996).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숙달목표와 수행목표의 효과의 차이는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로 구분하였을 때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수행접근목표는 타인에 비하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자하는 목표이다. 수행회피목표는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해 비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

표이다. Dykman(1998)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숙달목표의 관계를 연구하여 수용적인 부모의 태도가 아동으로 하여금 숙달 목표를 지향하게 함을 보여 주었다.

과제에 대한 유능감을 성취목표의 인지적 결정요인 중의 하나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Elliot 등(1997)은 자신의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를 지향하게 되고 유능감이 낮을수록 수행회피목표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은 진로미결정, 진로결정, 결단성 부족 등으로 분류되는데, 미결정자는 진로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undecided)를 뜻하는 진로에 국한된 미결정자와 생활과 행동 전반에 걸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pervasive indecisiveness) 혹은 chronically indecisiveness)을 보이는 만성적인 미결정자로 구분된다(김계현, 1995).

미결정의 차원을 밝혀내고자 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미결정의 문제 내에서 네 가지 차원을 밝혀낸 Osipow, Carney와 Barak(1976)의 견해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Career Decision Scale(CDS)을 실시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발견된 요인들을 진로미결정의 차원으로 해석하여 네 가지 요인을 발견하였다. (1) 구조와 확신이 부족(a lack of structure and confidence), (2) 선호하는 대안들 사이에서의 갈등(positive choice conflict), (3) 지각된 외부 방해 요인(perceived external barriers), (4) 개인 내의 갈등(personal conflict)이 그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진로를 결정할 때 학업은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업이라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성취 과제로 볼 때, 학생들의 성취목표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성취목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진로결정수준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할 때 진로확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진로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Rohner & Rohner(1981)가 제작한 모델을 기초로 하여 수용적태도, 거부적태도, 자율적태도, 통제적태도로 나누었고, 성취목표는 Elliot(1997)의 모델을 토대로 하여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로 구분하였다. 진로결정수준에 사용된 모델은 Osipow(1980)가 개발한 것으로 진로확신과 진로미결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취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나 라는 문제이다. 성취목표의 결정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개인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되며, 개인 외적인 요인으로는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Ames, 1992). 성취목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학습 장면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주로 연구 대상이었다. 예를 들자면, Ames(1992)는 학습풍토가 학생들이 지향하는 성취목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사회 환경적 요인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Carole과 Russel(1984)은 동기 체제를 교사 자신이 평가하는 상황과 학생의 숙달과정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교육 태도가 달라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성취목표의 세 하위요인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 지각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두 번째로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어떤 태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태도로 나

누어 살펴보고, 진로결정수준은 진로확신과 진로미결정으로 나누어, 진로확신과 관련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떤 태도이며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떤 태도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서울에 소재한 H 대학교와 D 대학교에서 학생 278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8명을 제외한 총 270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조사를 위한 도구는 권순명(1993)이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실제 조사에 사용한바 있는 Likert식 4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ohner(1981)에 의해 제작되었고, 김언주(1988)에 의해 번안 사용된 PARQ(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척도의 60문항 중 우리 문화와 생활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수용-거부 차원의 30문항과 정원식의 가정환경 진단검사에서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자율-통제 차원의 30문항 총 6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응답방법은 응답자가 전혀 다르다(1), 대체로 다르다(2), 대체로 그렇다(3), 거의 그렇다(4) 중의 어느 하나의 수치에 표시하도록 하고 문항 번호별로 점수화 하였다. 따라서 각 차원별로 최저 30점, 최고 120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부의 양육태도는 .61이고, 부의 양육태도를 각각의 태도별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수용적태도는 .89, 거부적태도는 .81, 자율적태도는 .60, 통제적태도는 .78이었고, 모의 양육태도의 신뢰도 계수는 .58이고, 모의 양육태도를 각각의 태도별로 살펴보면 수용적태도는 .90, 거부적태도는 .78, 자율적태도는 .67, 통제적태도는 .80이었다.

성취목표

개인이 지향하는 성취목표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Elliot와 Church(1997) 등이 사용한 성취목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특정 교과목에서 지향하는 학생들의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6개 문항씩 총 18개의 성취목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척도상으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성취목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성취목표는 .80(숙달목표는 .80, 수행접근목표는 .88, 수행회피목표는 .52)였다.

진로결정수준 검사

Osipow(Osipow, Carney, Winer, & Koschier,1980) 등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우리 문화에 적절한 표현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고등학생 이상의 성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과 미결정성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의 자기 보고식 문항 18개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의 두 문항은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 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문항은 교육과 진로 미결정의 전제 조건을 확인한다. 채점은 문항 1-2와 문항 3-18을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을 의미하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미결정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0(진로확신은 .78, 진로미결정은 .88)이었다.

절차

설문조사는 서울 시내 소재한 대학교 교양수업 시간에 담당 교수의 양해를 구하고 연구자가 간단히 설문지에 대한 지시문과 응답 요령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를 응답하는 시간은 25분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결정수준, 성취목표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설문지 답변을 완료할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한 통계 분석 처리는 SPSS Win 9.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서, 첫째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목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둘째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한 결과들을 상기한 연구문제의 맥락에서 조직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목표와의 상관계수(r)

| | 성취목표 | | |
|-------|-------|--------|--------|
| | 숙달목표 | 수행접근목표 | 수행회피목표 |
| 부-수용적 | .18** | .13** | .02 |
| 부-거부적 | -.09 | -.09 | .10 |
| 부-자율적 | .28** | .10 | -.08 |
| 부-통제적 | -.06 | .01 | .19** |
| 모-수용적 | .27** | .17** | -.12 |
| 모-거부적 | -.11 | -.03 | .14* |
| 모-자율적 | .22* | .10 | -.10 |
| 모-통제적 | -.01 | .08 | .14* |

* $p < .05$, ** $p < .0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목표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상정한 첫 번째 연구문제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목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로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수용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인 양육태도로 나누었고, 성취목표는 숙달목표, 수행회피목표, 수행접근목표로 나누어서 이들 변인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이라고 지각했을 때 숙달목표와 정적상관($r = .18, p < .01$)으로 유의하였고, 수행접근목표와도 정적상관($r = .13, p < .01$)으로 유의하였으나, 수행회피목표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거부적이라고 지각했을 때는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라고 지각했을 때는 숙달목표와 정

적상관($r = .28, p < .01$)으로 유의하였으나,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했을 때는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행회피목표와는 정적상관($r = .19, p < .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이라고 지각했을 때 숙달목표와는 정적상관($r = .27, p < .01$)으로 유의하였고, 수행접근목표와도 정적상관($r = .17, p < .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수행회피목표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라고 지각했을 때는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행회피목표와는 정적상관($r = .14, p < .05$)으로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라고 지각했을 때는 숙달목표와 정적상관($r = .22, p < .05$)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했을 때는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와는 유의한

표 2. 성취목표에 대한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요약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BETA | t |
|--|-------|------|------|--------|
| 숙달목표 R= .27 F= 4.84** df=4/250 | 부-수용적 | -.02 | -.03 | -.32 |
| | 부-거부적 | .02 | .03 | .31 |
| | 부-자율적 | .27 | .32 | 3.6*** |
| | 부-통제적 | .031 | .05 | .56 |
| 수행접근목표 R= .14 F= 1.33 df= 4/251 | 부-수용적 | .04 | .07 | .69 |
| | 부-거부적 | -.08 | -.10 | -1.02 |
| | 부-자율적 | .04 | .03 | .37 |
| | 부-통제적 | .09 | .12 | 1.37 |
| 수행회피목표 R= .23 F= 3.61 df=4/251 | 부-수용적 | .10 | .23 | 2.27* |
| | 부-거부적 | .036 | .06 | .61 |
| | 부-자율적 | -.11 | -.14 | -1.58 |
| | 부-통제적 | .10 | .18 | 2.09* |

* $p < .05$, ** $p < .01$, *** $p < .001$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수행회피와는 정적상관 ($r = .14, p < .05$)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목표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성취목표가 달라질 것임을 뜻한다. 다음은 성취목표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개개의 변인들의 독립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숙달목표와의 중다상관은 $R = .27$ 로 숙달목표에 대한 설명정도는 7.2%였다. 숙달목표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자율적 태도만이 BETA 값은 .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단순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에서 수용적인 태도($r = .18, p < .01$)

와 자율적인 태도($r = .28, p < .01$)가 숙달목표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자율적 태도만이 숙달목표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수행접근목표의 중다상관은 $R = .14$ 로, 양육태도 중 수행접근목표에 유의한 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상관 분석에서는 아버지의 수용적 태도가 유의한 상관 ($r = .13, p < .01$)으로 나타났으나,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수행접근목표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수행회피목표의 중다상관은 $R = .23$ 으로 수행회피목표에 대한 설명정도는 5.3%였다. 수행회피목표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수용적 태도는 BETA 값이 .23으로, 통제적 태도는 BETA 값이 .18로 수행회피목표에 유의하게

표 3. 성취목표에 대한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요약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BETA | t |
|--|-------|------|------|--------|
| 숙달목표 R= .30 F= 6.24 df=4/253 | 모-수용적 | .18 | .31 | 3.13** |
| | 모-거부적 | .040 | .06 | .60 |
| | 모-자율적 | .072 | .09 | 1.03 |
| | 모-통제적 | .081 | .13 | 1.62 |
| 수행접근목표 R= .26 F= 4.61 df= 4/254 | 모-수용적 | .22 | .30 | .69** |
| | 모-거부적 | .051 | .06 | -1.02 |
| | 모-자율적 | .070 | .01 | .37 |
| | 모-통제적 | .15 | .21 | 1.37* |
| 수행회피목표 R= .16 F= 1.65 df=4/254 | 모-수용적 | -.04 | -.01 | -.07 |
| | 모-거부적 | .051 | .08 | .83 |
| | 모-자율적 | -.01 | -.02 | -.22 |
| | 모-통제적 | .043 | .08 | .94 |

* $p < .05$, ** $p < .01$,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표 1의 단순상관분석 결과에서는 통제적 태도가 수행회피목표와 상관($r = .19, p < .01$)으로 나타났으나,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수용적, 통제적 태도가 수행회피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에서 자율적태도가 숙달목표를 증가시키고, 수용적태도와 통제적태도가 수행회피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숙달목표와의 중다상관은 $R = .30$ 으로 숙달목표에 대한 설명정도는 9.0%였다. 숙달목표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수용적 태도만이 BETA 값은 .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에서 제시한 단순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에서 수용적인 태도($r = .27, p < .01$)와 자율적인 태도($r = .22, p < .05$)가 숙달목표

와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수용적 태도만이 숙달목표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수행접근목표의 중다상관은 $R = .26$ 으로 수행접근에 대한 설명도는 6.8%였다. 수행접근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수용적 태도는 BETA 값이 .30으로, 통제적 태도는 BETA 값이 .21으로 수행접근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에서 제시한 단순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수용적 태도($r = .17, p < .01$)가 수행접근목표와 유의한 상관으로 나타났으나,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수용적, 통제적 태도가 수행접근목표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수행회피목표의 중다상관은 $R = .16$ 으로, 양육태도 중 수행회피목표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에 제시된 단순상관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통제적 태도가 유의한 상관 ($r=.14, p<.05$)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행회피목표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에서 수용적태도가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를 증가시키고, 또한 통제적태도도 수행접근목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번째 연구문제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각된 부모 각각의 수용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인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2개의 하위요인인 진로확신과 진로미결정과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진로확신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진로미결정에는 수용적 태도가 부적상관

($r=-.15, p<.05$)으로 유의하였고, 거부적 태도는 정적상관($r=.24, p<.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율적 태도와는 부적상관($r=-.18, p<.05$)으로 유의하고, 통제적 태도와는 정적상관($r=.25, p<.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 표 5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진로확신에는 수용적 태도가 정적상관($r=.21, p<.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거부적 태도에는 부적상관($r=-.15, p<.05$)으로 유의하였다. 자율적 태도에는 정적상관($r=.21, p<.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통제적 태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진로미결정의 상관관계에서는 수용적 태도가 부적상관($r=-.27, p<.01$)으로 유의하고, 거부적 태도에는 정적상관($r=.29, p<.05$)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율적 태도와는 부적상관($r=-.23, p<.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통제적 태도와는 정적상관($r=.24, p<.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에서 거부적이거

표 4.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계수(r)

| 아버지의 양육태도 | | 수용적 | 거부적 | 자율적 | 통제적 |
|-----------|-------|-------|-------|--------|-------|
| 진로결정수준 | 진로확신 | .07 | -.08 | .19 | -.04 |
| | 진로미결정 | -.15* | .24** | -.18** | .25** |

* $p<.05$, ** $p<.01$

표 5.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계수(r)

| 어머니의 양육태도 | | 수용적 | 거부적 | 자율적 | 통제적 |
|-----------|-------|--------|-------|--------|-------|
| 진로결정수준 | 진로확신 | .21** | -.15* | .21** | -.05 |
| | 진로미결정 | -.27** | .29* | -.23** | .24** |

* $p<.05$, ** $p<.01$

나 통제적인 태도는 진로미결정을 높이고, 수용적이거나 자율적인 태도는 진로미결정을 낮추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수용적, 자율적 태도는 진로확신을 높이고, 거부적인 태도는 진로확신을 낮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거부적, 통제적인 태도는 진로미결정을 높이고, 수용적, 자율적인 태도는 진로미결정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의 개개의 변인들의 독립적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통계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양육태도의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부록 참조).

논 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연구문제는 대학생들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취목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결과를 단순상관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라고 지각하는 대학생은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라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숙달목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수행회피목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가 높아지고 자율적이라고 지각하는 경우에 숙달목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라고 지각했을 때 수행회피목

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무환경을 허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전수현, 1998)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향상과 진보, 과제의 숙달에 중점을 두는 학급의 풍토가 숙달목표를 지향하게 하고 지지적이고 비평가적이며 수용적인 부모의 태도가 아동으로 하여금 숙달목표를 지향하게 한다는 Dykman(1998)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다회귀분석에 의하면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라고 지각할 때 숙달목표를 높이고 수용적이거나 통제적이라고 지각할 때 수행회피목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행접근목표에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라고 지각할 때 숙달 목표와 수행접근목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회피목표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로결정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단순상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에서 진로확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육태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결과로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진로확신에 영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아버지가 수용적이거나 자율적이라고 지각했을 때 진로미결정과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라고 지각했을 때 진로미결정과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진로확신과 진로미결정이 부적상관관계($r = -.64, p < .01$)에 있으므로 나타나는 결과로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거나 자율적이라고 지각했을 때 진로확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대학생들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거나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확신이 높아지고,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진로확신과 진로미결정과의 부적상관관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정확하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 중에서 부모의 수용적태도와 자율적태도가 다른 양육태도 변인들보다 진로관련 변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연숙(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숙달목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높아지고, 수행접근목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거나 통제적이라고 지각할 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확신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거나 자율적이라고 지각할 때 진로확신이 높아지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라고 지각할 때 진로미결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자율적이라고 지각할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이라고 지각할 때 숙달목표와 진로확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수행접근목표는 과제 수행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Elliot & Church, 1977; Elliot & Harackiewicz, 1996; Harackiewicz, Barron, Carter, Lehto & Elliot, 1997)와 학업성적이 숙달목표보다는 수행접근목표의 영향에 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정환중, 1999)에 의한다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라고 지각할 때 뿐 아니라 통제적이라고 지각될 때도 자녀에게 기대하는 학업 성적향상을 가져온다고 하겠다.

부모상담 장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로 자녀와 갈등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학업 시기에는 좋은 성적을 갖게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진로를 잘 갖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부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자녀들에게 제시해 주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할 때 자녀들의 학업성적은 올라가지만 진로미결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라고 지각되는 양육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거나 통제적이라고 지각할 때 성취회피목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주의해볼 만한 결과이다. 따라서 자녀들이 아버지는 자율적이라고 지각할 때, 어머니는 수용적이라고 지각할 때 학업 성적도 높이고 진로결정 수준도 높이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자녀문제로 상담을 의뢰하는 부모들에게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성취목표에 대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상관계수와 설명도가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 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순명 (1993). 지각된 양육 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 황혜정 (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2-26.
- 김계현, 김봉환 (1995).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 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20-43.
- 김연주 (1998). 인지-정의 인과론에 관한 귀인론적 접근. *교육발전논총*, 6(1), 73-94.
- 김충기 (1989).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정원사.
- 송설희 (1993). 가족 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연숙 (200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승, 오성심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우트*, 11(1).
- 전수현 (1998). 기업조직에서 성취목표의 결정요인과 그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 이상노, 이성진 (1985).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정환중 (1999). 성취목표가 학습습관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es, C. (1984). Achievement attributions and self-instructions under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goal structur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478-487.
- Ames, C. (1992). Classrooms: goal,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61-171.
- Ames, C., & Archer, J. (1987). Mother' beliefs about the role of ability and effort in school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409-414.
- Bandura, M., & Dweck, D. S. (1985). *The relationship of conceptions of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goals to achievement-related cognition, affect and behavior*.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ecker, W. C. (195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C.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1. New York: Sage Foundations.
- Butler, R. (1992). What young people want to know when: The effects of mastery and ability goals on interest in different kinds of social compari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934-943.
- Deci, E. L., & Ryan, R. M. (1980). The empirical exploration of intrinsic motivational processe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3, pp. 39-80). New York: Academic Press.
- Dweck, C. S. (1986). Motivational proces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 1040-1048.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 256-273.
- Dykman, B. M. (1998). Integrating Cognitive and Motivation Factors in Depression: Initial Tests of Goal-Orientation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39-158.
- Elliot, A. J., &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18-232.
- Elliot, A. J., & Harackiewicz, J. M. (1996).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A Media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61-475.
- Elliot, A. J., & Sheldon, K. M. (1997).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A Personal Goals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71-185.
- Elliott, E. S., & Dweck, C. S. (1988). Goals: An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5-12.
- Harackiewicz, J. M., Barron, K. E., Carter, S. M., Lehto, A. T., & Elliot, A. J. (1997).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Achievement Goals in the College Classroom: Maintaining Interest and Making the Gra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284-1295.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Irwin, D. B. & Simons, J. A. (1994). *Lifespan development psychology*. Wisconsin: Brown & Benchmark.
- Leggett, E. L. (1985, March). *Children's entity and incremental theories of intelligence: Relationships to achievem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Maehr, M. L. (1989). Thoughts about motivation. In C. Ames & R. Ames(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Goals and motivations* (Vol.3, pp.299-315). New York: Academic Press.
- Martin, B. (1975). Parent-child relations. In F. D. Horowitz(Ed.), *Child development research* (pp.463-54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icholls, J. G. (1984). Achievement motivation: Conceptions of ability, subjective experience, task choice,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91, 328-346.
- Nicholls, J. G. (1989). *The competitive ethos and democratic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sthor Consulting and Press.
- Rohner, R. P. (1984).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New Haven. CT: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Rohner, R. P. (1991).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re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Rohner, R. P., & Rohner, E. C. (1981).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 cultural coders. *Ethnology*, 20, 245-260.
- Saavedra, J. M. (1980). Effect of perceived parental

- Warmth and control on the self-evaluation of Puerto Rican adolescent males.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41-53.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ymonds, P. M. (1949).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Y: Appleton-century craft.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2nd ed.). Boston: Houghton Mufflin.
- 원 고 접 수 일 : 2003. 12. 11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 14
게 제 결 정 일 : 2004. 2. 3



The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on Achievement Goal and Career Decision -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

Hyun-Sook Lee

Han-Ik Cho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how the attitude of parents' child-rearing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their achievement goals affect career decisions. I came to suggest in this research which type of child-rearing attitude of parents is reasonable to their children in deciding their own careers. The child-rearing attitude of parents is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cceptance, rejection, autonomy, and control. Achievement goal is classified into mastery goal, performance approach goal, performance avoidance goal. Career decision level is classified into decision-making style, and career indecision. The main topic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the child-rearing attitude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s achievement goal? (2)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the child-rearing attitude of parents and career decision? For this research, 270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as samples. The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is summarized as follows;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child's mastery goal is increased when he or she recognizes his/her father has autonomy attitude and mother has acceptance attitude, and the child's performance approach goal is increased when the child recognizes that his/her mother has acceptance attitude or control attitude. The child's performance avoidance goal is increased when the child recognizes that his/her father has acceptance attitude or control attitude. Decision-making style increased when parents' acceptance attitude or autonomy attitude were recognized. Career indecision increased when parents' rejection attitude or control attitude were recognized.

Key Words :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chievement goal, career decision

부 록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계수(r) 행렬

| | 아버지의 양육태도 | | | | 어머니의 양육태도 | | | | 성취목표 | | | 진로결정수준 | |
|-----|-----------|-----|-----|-----|-----------|-----|-----|-----|------|-----|-----|--------|-----|
| | 1-1 | 1-2 | 1-3 | 1-4 | 2-1 | 2-2 | 2-3 | 2-4 | 3-1 | 3-2 | 3-3 | 4-1 | 4-2 |
| 1-1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
| 3-2 | | | | | | | | | | . | | | |
| 3-3 | | | | | | | | | | | . | | |
| 4-1 | | | | | | | | | | | | . | |
| 4-2 | | | | | | | | | | | | | . |

* $p < .05$ ** $p < .01$

아버지의 양육태도 1-1 수용적태도
1-2 거부적태도
1-3 자율적태도
1-4 통제적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 2-1 수용적태도
2-2 거부적태도
2-3 자율적태도
2-4 통제적태도

성취목표 3-1 숙달목표
3-2 수행접근목표
3-3 수행회피목표

진로결정수준 4-1 진로미결정
4-2 진로확신